

'등글게 등글게' 동요 작가 정근 전집 나왔다

광주 양림동 출신...3권 출간

동시·동요 악보·회로록 등 담아
오늘 광주 동구청서 출판기념회

"나는 전쟁의 시달림 속에서 어린이를 좋아하게 되었다. 지금은 없어지고 말았지만 사범학교처럼 광주의 유치원 교사양성기관인 신성보육학교에 근무하면서 어린이 교육을 위해 필요한 노랫말을 쓰고 작곡도 하였다. 나는 전문인처럼 고집을 가지기보다는 유치원 어린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짧은 말로 대화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는 새로운 경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양림동 출신 동요 작곡가(1930~2015)가 고향을 떠난 지 55년 만에 책을 통해 '귀향'했다. 지난 1967년 광주를 떠나 서울로 상경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던 정근 작가는 지난 2015년 서울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번 '귀향'은 55년 만에 책을 통해 '부활'한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한국 동요사의 한 페이지를 열었던 정근을 조명해 '정근 전집' (3권·작가)이 최근 발간돼 눈길을 끈다.

정근은 1930년 11월 21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 210번지에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부친은 한학자이자 시인인 정순극 씨이며 모친은 정암이 씨다. 정근에게는 월북한 영화감독 준재(1917~1980), 카자흐스탄 작곡가 추(1923~2013), 목포상고 출신의 번역가 권(1925~1950), 그리고 누이 경희(1921~2011)가 있다. 한마디로 정근의 가족은 근현대사의 비극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전집은 '등글게 등글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등 수많은 명곡을 썼던 그의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정근이 생전에 작곡했던 동요와 그가 썼던 일기, 회고록, 수필 등을 중심으로 엮었는데 아들인 철훈 씨가 편집을 맡아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1권은 '운문' 편으로 동시와 동요(악보) 위주로 묶였다. 구체적으로 동시는 '동요로 불리는 동시' (74편)와 '곡을 붙이지 않는 동시' (58편)로 분류했다. 새로 발굴된 동시는 2003년 노트에 적혀 있던 44편을 수습했다. 당



생전의 정근 선생이 정근 선생이 '구름' 시비 앞에서 포즈를 취한 모습.



시 노트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 "일기에서 옮겨 썼으니 날짜와 관계없이 느낀 대로 이 노트에 동요 동시를 적어 기억해둔다."

발굴된 44편의 작시는 1993년부터 2006년에 걸쳐 있으며 동시는 모두 176편으로 확정됐다.

동요는 '노랫말 쓰고 곡을 붙인 동요' (74곡)와 '노랫말 쓰고 여러 작곡가가 작곡한 동요' (20곡), '여러 동시인의 시에 작곡한 동요' (19곡)로 분류했다.

정근이 1980년부터 2005년에 걸쳐 작곡한 동요는 모두 269곡이다. 이 동요들은 대체로 그가 유년시절 양림동 골목을 놀이터 삼아 뛰어놀던 기억의 산물일 게다. 양림

교회 부설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치던 풍금 소리는 아마도 창작의 원천으로 작용했으리라 추측된다.

2권은 '산문'이 주로 수록돼 있다. '회고록', '나의 형제', '일기'를 비롯해 소설 '눈보라', 기타 수필 그리고 '투병기' 등이 실려 있다. 이 가운데 '회고록'과 '나의 형제'는 일기에서 가려 뽑았는데 일기는 1990년 시작해 2011년 끝난다. 당시 일기는 매년 한국방송작가협회에서 보내온 '작가 수첩'에 빼곡히 적혀 있었다.

철훈 씨에 따르면 회고록은 2003년 3월 7일~4월 19일에 걸친 일기에서, '투병기' 역시 2003년 4월 20일~5월 12일에 걸친 일기에서 수습되었다. 철훈 씨는 "말년에 대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동안 신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생명 의의를 발견하고자 했던 강한 집념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아닐까 싶다고 언급했다.

3권은 유교 '말하는 이야기 대화'를 담고 있다. 정근에게 있어 이야기는 고향과 같았을 것이다.

한편 전집 출간 관련 출판기념회가 18일 오후 3시 광주 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자폐·어린이 해방·팽나무... 매회 고민거리 던진 '우영우'

올해 최고 인기 드라마로 종영까지 2차례 방영된 남겨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하 '우영우')는 시청자들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며 웃음과 감동을 안겼다. 방송가에서는 '우영우'가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누린 이유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만 들춰보지 않은 문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공감을 샀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본 바탕은 법정물인 '우영우'는 에피소드마다 여성, 어린이, 영세업자, 성소수자,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또 천연기념물 지정, 문화재관람료 폐지 등의 사건을 다루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 사회적 약자·잇고 있던 가치 향한 따뜻한 시선...어린이 해방부터 팽나무까지

'우영우'는 자폐를 넘어 사회적 약자나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1회에서는 치매 남편을 돌보다가 순간적으로 폭력을 행한 70대 아내 사건을 통해 가족에게만 맡겨진 노인 돌봄의 현실을 짚어냈다.

폭언을 일삼는 남편을 홀로 돌보는 노인이 참다못해 울분을 토하는 장면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지만, 돌봄에 대한 부담을 오롯이 감당하는 가족들에게 큰 공감을 샀다.

7·8회에서는 마을 한가운데 도로가 놓이게 된 소먹들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무형의 아름다움을 지닌 마을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했다.

마을 중앙을 지키는 단상나무인 팽나무와 별명을 서로 부르며 정겹게 지내는 주민들의 모습은 도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더불어 사는 가치를 다시 들여다보게 했다.

12회에서는 교묘하게 여직원들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건을 소재로 해 여성 차별 이슈를 도마 위에 올렸다. 1999년 '농협 사내 부부 해고 사건'을 모티브로 한 이 에피소드는 업무 능력과 별개로 내조를 강요받은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과연 과거만의 문제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 '어떻게 안 도와줘' vs '우영우는 약자가 아니다'

우영우에게 아빠나 친구 동그라미(주원영)가 완전한 '내 편'이라면, 동료 변호사 최수연과 권민우는 사회를 살아가며 마주하는 사람들로 등장한다. 최수연이 우영우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인물이라면, 권민우는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고 싶어서 안 되는 인물이다.

최수연은 '봄날의 햇살'이란 별명처럼 우영우가 회전문에 갇혀 나오지 못하고 버둥대던 문을 잡아주고, 재료가 눈에 보이는 김밥만 먹길 고집하는 우영우에게 구내식당에 김밥이 나오는 날을 알려준다.

그러면서도 난감한 상황에 부딪힌 우영우를 보면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안 도와주냐"며 다가간다. 장애가 있으니 돌봐줘야 한다는 의의감이 아니라 함께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에 대한 친절이자 최소한의 도리다.

반면 '권도술수 권민우'란 별명을 가진 권민우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우영우를 질투하며, 우영우가 약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권민우는 우영우에게 차에 남은 한 자리를 양보하게 되자 "우영우는 우리를 매번 이기는데, 우리는 우영우를 공격하면 안 돼. 왜 자폐인이니까. 우리는 늘 배려하고, 돕고, 양보해야 한다"고 소리친다.

/연합뉴스

"아버지는 폐허 속 상처받는 어린이에 희망주려 동요 작곡"

정근 작곡가 아들 철훈씨 인터뷰

"아버지 전집 발간을 계기로 저 역시 고향 광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967년 아버지를 따라 광주를 떠나 서울에 정착했는데 55년 만에 댕차리로 돌아왔네요."

정근 작곡가의 아들 철훈 씨는 "서울생활을 정리하고 마침내 고향으로 왔다"는 말로 감회를 표현했다.

17일 광주일보 편집국 회의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아버지를 비롯해 큰아버지 정중재, 작은아버지 정추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양림동에서 태어나 각지로 흩어져 살아야 했던 아버지 형제들의 이야기는 근현대사의 아픔이자 민족의 수난과도 연계되는 살아 있는 역사 그 자체였다.

그에 따르면 아버지 정근은 "만돌린과 기타, 바이올린을 끼고 살았던 형들의 영향으로 어린시절부터 음악에 심

취했던 것 같다"며 "형들이 월북 이후 연좌제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렀기에 상대적으로 어떤 이데올로기에서도 자유로운 동요 창작에 매달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상처받은 고아나 어린이들의 동심을 회복하고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해 동요를 작곡했다"며 "특히 가락 감수성이 민감한 만 6세 이하의 유아들을 위해 스스로 작사한 가사에 곡을 붙였다"고 덧붙였다.

철훈 씨는 아버지의 별명은 '텔레비전 할아버지'였다고 했다. 정확히 말하면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는 방송인이자 동요작가였다.

"동요 '텔레비전'은 흑백 TV가 컬러 TV로 변하기 직전인 1970년대 말에 작사 작곡한 대표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전파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함께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어 하는 어린이들의 꿈을 동요에 담아냈



고 '등글게 등글게' 등의 동요를 통해 어깨를 들썩이는 울동을 보여줬지요."

국민일보 문학전문기자이자 논설위원 등을 역임한 그는 현재는 서울 도봉구 편지문학관 관장을 맡고 있다. 8권의 시집, 4권의 장편 소설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그는 김남조, 박상룡 등 문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편지 20여 통을 수습했으며 기회가 되면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향후에 "부친과 그 형제들의 삶을 조명하는 책을 펴낼 계획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전집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봄에 떠나는 그리는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 왕복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 왕복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칼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스틸방수시공모습

합제시공모습

스틸방수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